

사 2 맛나는 세상

2026년 1+2월 vol.158

AI의
분석

VS

사람의

공감

GOOD-NEWS.O.R.KR

삽화: 파란색과 주황색이 대비된 배경 위에 'AI의 분석 VS 사람의 공감'이라는 글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Contents



04

프롤로그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 공감

06

테마 에세이

AI 시대의 착각,
공감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
불완전한 공명이다

10

계속 써내려간 이야기

제20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자
조정실 씨

14

청년 봉사 인사이트

청운보육원에서
28년째 봉사를 이어온
참사랑마을

18

변화의 온도

버려진 장난감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사단법인 트루

22

일상 속 살맛나는 세상

살
맛나는 세상 2026년 1+2월 vol.158

등록일자 1999년 4월 19일 등록 신고번호 서초마00080(격월간 비매품) 발행일 2026년 1월 5일 발행인 겸 편집인 백기훈
발행처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17층 '살맛나는 세상' 편집실 기획 오수민 구독신청 및 문의 오운문화재단 홈페이지
(www.good-news.or.kr) 편집 및 디자인 위닷(wedot.co.kr) 인쇄 보명씨앤아이(02-2274-4545) 사진 김태화



23

—— 살친소 ——

‘살맛나는 세상’을
친구에게 소개합니다!

24

—— 나의 삶, 나의 보람 ——

서귀포오석학교에서 34년간
청소년과 어르신을 가르쳐온
양희라 씨

28

—— 배움과 나눔 사이 ——

국악봉사단 ‘놀패’를 이끌며
공연 봉사를 하는
장남익 씨

32

—— 봉사로 피워낸 희망 ——

전화상담 봉사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김귀선 씨

36

—— 다시 빛나는 인생 ——

군 퇴직 후 25년째 봉사하는
이만구 씨

40

—— 다정한 행동도감 ——

겨울의 추위를 녹여준
따뜻한 행동들

42

—— 삶을 비추는 문화 ——

공감, 서로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46

—— 코오롱 사회공헌 Insight ——

50

—— 빨간 우체통 ——

프롤로그

사진: 좌측 페이지에는 그래프가 인쇄된 책과 키보드 위에 손이 보이고, 우측 페이지에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다.

기술의 시대 속
사람의 온도를 지키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요즘은 감정조차 데이터로 읽어내는 시대입니다.
표정의 움직임과 목소리의 떨림까지 수치로 변환되지만,
정작 마음의 온도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잠시 머무는 침묵, 말끝에 스치는 미세한 흔들림,
그 작은 조짐들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마음을 기울이게 합니다.
그 감각만은 누구도 대신 느낄 수 없습니다.

AI는 감정을 분석하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느낍니다.
AI는 감정의 원인을 찾아내지만, 사람은 감정의 온도를 느낍니다.
기계는 공감을 계산할 수 없지만,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기술의 시대, 사람의 온도를 지키는 첫 번째 가치는 공감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살피고, 말하지 않은 감정을 조용히 이해하는 일.
그 따뜻함으로 2026년 《살맛나는 세상》의 문을 엽니다.



능력 공감



기술은 감정의 단서를 인식할 수 있어도, 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공감은 분석으로 만들어지는 반응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감정까지 기술이 해석하려는 지금, 인간이 가진 공감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삽화: 위에서 내려오는 손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손이 서로를 향해 뻗어 있으며, 손 주변에 그래픽 질감이 겹쳐져 있다.

AI 시대의 착각, 공감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 불완전한 공명이다

분석의 한계, 공감의 시작

AI는 인간의 감정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목소리의 0.3초 떨림, 눈가의 미세한 근육 수축, 입꼬리의 각도까지 측정하며 감정 상태를 추정하죠. “괜찮아요”라는 말 뒤 실제로는 괜찮지 않다는 뉘앙스를 높은 확률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AI는 그 감정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기억과 맥락이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눈물이라도 전혀 다른 사연을 품고 있는데 말이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상담 챗봇의 공감 반응이 인간 전문가보다 더 따뜻하고 배려 깊게 느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AI는 감정적 편차 없이 안정적인 톤을 유지하고, 지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품질의 위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공감의 본질은 일정한 톤이나 정확한 문장의 조합에서 탄생하지 않죠. 때로는 말이 다듬어지지 않아도, 침묵이 길어도, 어설픈 표현 속에서 오히려 더 진심이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더없이 연약한 갈대이지만,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곧, 인간의 연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자 공감의 원천이라는 의미이

정호훈 디지털융복합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마케팅 전략 및 디지털전환(DX) 컨설팅사 ‘퍼스펙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대림대학교 경영학 겸임교수, 채용 전문 면접관 등의 경력에서 얻은 폭넓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AI, 경영, 문화, 심리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삽화: 높은 벽으로 이루어진 미로 한가운데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기도 하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무게를 함께 나누어 왔던 것이 결국 인간의 역사 아닐까요.

AI가 인간의 상태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진심을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공감이 정답을 맞히는 기술과 분석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실패의 본질과 공감의 필연성

AI에게 실패란 수정해야 할 오류이며, 데이터 상의 편차일 뿐입니다. 학습과 버그 제거라는 과정을 반복하며, 정답의 확률 공간 안에서만 최적의 경로를 찾죠. 목적은 명확하고, 실수는 곧바로 개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공백과 변수,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성만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선택하고,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며, 편향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순간, 나머지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고, 그 포기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불안과 후회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회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은 비선형적이기에, 실패는 피할 수 없는 숙명에 가깝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공감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서로에게 기대고, 실수하기에 서로를 이해합니다. 심지어 산속에서 홀로 지내는 '자연인'조차도 공감을 합니다. 내면의 감정과 소통하고,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과정 또한 공감의 한 형태죠.

타인의 실패에 공감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상호 취약성의 인식이 서로를 연대하게 만들고, 위로를 건네야 한다는 도덕적 감수성을 자극합니다. 공감은 실패로 흔들린 개인을 회복시키는 심리적 안전망이며, 공동체가 개인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입니다. 제도적 안전망이 존재의 생존을 돕는다면, 공감은 존재의 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감은 실패로 흔들린 개인을
회복시키는 심리적 안전망이며,
공동체가 개인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입니다.
제도적 안전망이 존재의 생존을
돕는다면, 공감은 존재의 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진: 두 손으로 금으로 이어 붙인 금이 간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다. 일본의 전통 수리 기법인 킨초기로 복원된 그릇이다.

회복탄력성은 자기 공감과 타인의 공감이 만나 상처를 성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두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회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실패를 데이터로 축적하지만, 인간은 실패를 통해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갑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체의 사이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레플리컨트(복제인간)는 인간의 감정표현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모방합니다. 하지만 보이트-캄프 테스트를 통해 감정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 생리 반응에서 인간과의 차이를 감별합니다. 모방은 가능하지만, 인간 특유의 미세한 감정 곡선을 완전하게 재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퀄리아(Qualia)*의 존재입니다. 빨간색을 볼 때 밀려오는 느낌, 바람이 스칠 때의 온도, 음악이 가슴을 울릴 때의 흥분처럼, 오직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감각의 세계,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도 이러한 주관적 내면 경험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AI가 슬픔의 언어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그 슬픔의 실제적인 무게나 쓰라린 고통의 경험을 알 수 없습니다. 감정의 온도는 정밀하게 측정된 데이터가 아니라, 오직 살아 있는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경험에서 나오며, 그 경험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행위가 바로 공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만드는 세상

인간 사회에 공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감이 부족한 사회에서 인간은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침식에 노출되며, 이 생물학적 스트레스는 인간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장기화된 외로움은 기억력 저하나 면역 기능 약화 등 신체적 문제까지 야기하며,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공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고독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 직을 신설한 것은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공중보건 이슈로 인정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고독 담당 장관은 '모든 마음이 중요하다(Every Mind Matters)' 캠페인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결국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신호이며, 이를 막고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회복제가 바로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AI가 더 빠르게 감정을 분석하고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에 머무를 뿐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너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연대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고독한 존재 옆에 존재하기만 해도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실체가 되는 이것은 오직 인간끼리의 공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원하는 것은 AI가 주는 답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천천히, 깊게 이해하고 온기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공감은 계산할 수 없는 인간만의 언어이며,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AI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아닌,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헤아린 모든 이의 공감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사진: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



*퀄리아(Qualia):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의식적인 감각의 질적 측면을 의미하며, 감각질(感覺質)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버텨 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스물다섯 해를 서 있었다. 오래전 그는 학교 폭력을 당한 딸 곁에서 눈물과 고통을 견딘 피해자 가족이었고, 그 시간은 그에게 가슴 깊이 남은 상처이자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한 출발점이었다. 그 길을 먼저 지나온 조정실(67) 씨는 이제 치유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다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힘이 되어 주고 있다.

다시 걷는 이들을 위해 길이 되어 주는 사람

제20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자 조정실 씨



사진: 조정실 씨가 책상에 앉아 미소를 띠고 있다.



사진: '학교폭력 OUT' 이 적힌 노란 팻말을 들고 학교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조정실 씨와 학부모들

상처의 자리에 서야 했던 시간

2000년 4월, 중학생 딸이 학교폭력을 당했다. 학교는 사건을 축소했고 당국은 책임을 피했다. 고립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피해자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 시간은 상처였지만, 누구도 이 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의 시작이 되었다.



사진: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조정실 씨

개인의 절망을 연대로 바꾼다

그는 곧 같은 아픔을 겪은 부모들과 손을 잡았다. 매주 대학로에서 서명운동을 이어가며 사건을 알렸고, 서울 성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절감했다. 서로의 손을 붙든 이 연대는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2006년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폐교에서 시작된 첫 치유의 터

2013년, 그는 대전 유성구 옛 대동초등학교 부지에 기숙형 치유시설 ‘해맑음센터’를 열었다.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겨울엔 난방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했지만 부모들이 쌀과 김치를 싸 들고 와서 함께 버텼고 아이들은 조금씩 회복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그는 자신의 상처도 함께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사진: 해맑음센터의 학생들이 공중에 스카프를 던지며 즐겁게 캠프 활동에 임하고 있다.



사진: 학생들이 마당에 나란히 서서 하늘에 뜬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치유가 되는 공간

요즘 학교폭력은 폭행보다 ‘따돌림’과 ‘놀이’의 형태로 더 교묘해졌다. 긴장한 얼굴로 들어오던 아이들은 함께 지내며 가장 먼저 변한다. “같이 밥 먹자”라는 말, 혼자 있는 친구 곁에 조용히 앉아 주는 행동이 아이들을 회복시킨다. 그는 치유의 힘이 또래 안에서 온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진: 학교폭력 피해 가족 대상 힐링가족캠프 단체사진

2000년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결성,
대학로 서명운동 시작
서울 성동구 중학생 사망 사건으로
연대 확대 및 학교폭력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 본격화

2006년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 설립

2010년

학교폭력 피해 가족
대상 힐링 가족캠프
시작

2013년 7월

대전 유성구 옛
대동초 부지에 기숙형
치유시설 ‘해맑음센터’
개소



사진: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영동휴양소에 자리한
해맑음센터

폐쇄 통보 이후, 산골에서 이어간 또 한 번의 시작

옛 건물은 시설 점검 이후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통보가 내려졌고, 적합한 대체 공간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결국 그가 아이들과 옮긴 곳은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의 영동휴양소였다. 교실 하나와 협소한 기숙사뿐이지만, 안전이 보장된다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의 버팀목이 되었다.

우정선행상이 이어준 힘, 계속 걸을 수 있는 기반이 되다

우정선행상은 그가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준 상이었다. 상금은 상담 공간을 꾸리고 부모와 아이들을 맞이할 자리를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힘든 순간이 문득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는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다시 일어설 아이들의 웃음을 떠올리며 그 시간을 버텨낸다. 그렇게 얻은 힘으로 그는 오늘도 치유의 길 위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



사진: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진행된 제20회 우정선행상 본상 시상식 단체사진

사진: 해맑음센터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는 조정실 씨



2014년

대학생·피해학생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시작

2020년

제20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

2023년 9월

건물 폐쇄 조치로 인한 이전,
충북 영동군에서 해맑음센터
운영 지속

2026년 1월 현재

전국 일곱 개
지역센터와 연계한
회복 지원 체계 운영 중

사진: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모여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는 참사랑마을 봉사자들



한결같이 이어온 스물여덟 해의 일요일

청운보육원에서 28년째 봉사를 이어온
참사랑마을





사진: 초등학교 저학년 원생들과 몸으로 하는 보드게임을 함께하기도 했다.

익숙한 일요일, 마음을 바꾸는 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참사랑마을(이하 참사랑) 봉사자들은 변함없이 청운보육원의 문을 두드린다. 문틈으로 아이들의 발걸음이 먼저 들리고, 봉사자들은 공작 재료와 보드게임 상자를 꺼내며 자리를 만든다. 참사랑의 일요일은 특별한 이벤트보다 이런 익숙한 장면들이 더 많이 쌓여 있는 시간이다. 참사랑을 이끌고 있는 안국영(35) 씨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몇 번의 일요일을 지나며 이 시간의 활동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아이들은 봉사자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오고, 생일파티 날에는 함께 앉고 싶은 선생님의 자리를 비워두기도 한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다림과 반가움이 반복되면서 관계는 매주 조금씩 깊어진다. 그 변화 속에서 안국영 씨는 자신이 누군가의 일주일을 지탱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했다고 했다. 참사랑의 일요일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조용한 변화들이 매주 이어지기 때문이다.

스물여덟 해 동안 이곳의 일요일은 늘 같은 마음으로 이어져 왔다. 반복 속에서 관계는 조금씩 단단해졌고, 그 관계는 어느새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이어온 일요일은 청년들에게 ‘책임감’이라는 마음을 가만히 일러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사진: 1998년 일일 호프로에서의 초창기 멤버들. 일일 호프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은 참사랑의 오랜 전통이다.



사진: 장승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야외 체육활동

28년 동안 이어진 관계의 방식

참사랑의 시작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PC통신 '나우누리'에서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청운보육원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온라인 동아리가 출발점이었다. 처음에는 학습 지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봉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활동 영역은 자연스럽게 넓어졌다. 실내에서 공작과 놀이를 함께하는 안방놀이,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단체 외출, 명절이나 방학에 이루어지는 가정체험, 선생님 두 명과 아이 두 명이 함께 움직이는 개인 외출 등 활동의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사진: 청운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태안 기름 제거 봉사 활동

참사랑이 28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활동보다 사람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오래 활동해 온 선배들은 큰 행사 때마다 참석해 흐름을 이어 주고, 새로운 봉사자들은 선배들이 다져 둔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가까워진다.

중심에는 늘 아이들의 일상을 함께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무엇보다 참사랑이 28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활동보다 사람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오래 활동해 온 선배들은 큰 행사 때마다 참석해 흐름을 이어주고, 새로운 봉사자들은 선배들이 다져 둔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가까워진다. 세대가 바뀌어도 마음이 이어지는 까닭은,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온 오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기다리는 마음과 그 마음을 다시 받아 일요일마다 걸어온 발걸음이 이곳의 시간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했다. ㉠



사진: 산타로 변신한 참사랑 봉사자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있다.

시삽(Sysop)* 안국영 씨와의 미니 인터뷰

참사랑마을에게 물었습니다

사진: 참사랑마을을 이끌고
있는 안국영 씨



Q. 봉사자 호칭을 ‘선생님’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이나 누나로 불러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어른과 친구의 경계를 헛갈릴 수 있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따뜻함과 책임감을 함께 지키기 위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Q. 목욕 도우미 활동은 독특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이들이 공동생활 안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일상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돕기 위한 활동이에요. 봉사자 두 명과 아이 두 명이 함께 목욕탕을 찾아 가볍게 몸을 씻고 찜질방에서 쉬며 대화를 나눠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신뢰가 오래 쌓여 있어 가능한 시간이예요.

Q.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완할 계획인가요?

중학생이 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와 인터넷 사용, 위험 상황을 구별하는 법 등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 기준을 함께 세워 주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 시삽(Sysop)은 시스템(System)과 운영자(Operator)의 합성어로, PC통신 시절 동호회나 게시판 등을 관리·운영하던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참사랑마을은 PC통신 ‘나우누리’에서 출발한 단체로 ‘대표’나 ‘회장’ 대신 당시 사용하던 명칭인 ‘시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다양한 색과 형태의 버려진 장난감 블록 조각들이 두 손에 담겨 있다.

Toy Recycle Union

TRU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내재한 불문율이 있다. 장난감만큼은 때마다 새로운 것,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줘야 한다는 것. 그런데 유행이 지나고 쓸모를 다한 장난감은 쉽게 산 만큼 쉽게 버려진다. 일회용품이 아닌, 더구나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이것들은 그 후에 모두 어떻게 될까?



지구와 환경, 미래를 생각하는 윤리적 실천

버려진 장난감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사단법인 트루



사진: 깨끗이 손질한 뒤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된 장난감들이 다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분해와 분쇄 과정을 거쳐 색깔별로 정리된 플라스틱 플레이크

어른과 아이, 모두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실 장난감은 어린이의 전유물이 아니다. 키덜트(Kidult) 문화가 생겨나면서 캐릭터 피규어를 모아 전시하거나 고난도의 조립 키트를 구입하는 어른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난감은 과도하게 생산, 소비되고 순식간에 쓰레기로 전락한다. 재활용률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 장난감 입장에서는 참 서운할 일이다.

“아이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선물하지만, 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망가뜨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장난감입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아이가 사용했던 장난감을 재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았거든요. 아이들에게 새 장난감만큼이나 소중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트루(TRU·Toy Recycle Union, 이하 트루)는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설립된 비영리 기구(NGO)이다. 20년 넘도록 장난감 재활용 사업과 환경교육에 힘써온 사회적기업 ‘금자동이’가 모태가 되어 지난 2020년 설립되었다. ‘금자동이’시절부터 현재까지 트루의 실질적인 활동 전반을 도맡고 있는 박준성 사무총장은 ‘금이야 옥이야 키운 아이들과 그들의 지구를 지키는 것’이 트루의 목표라고 말한다.



사진: 기부자가 방문해 전달한 장난감을 박준성 사무총장이 수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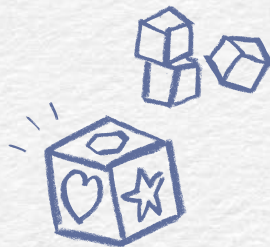


사진: 업사이클링 판재 '널'은 소품뿐 아니라 테이블, 의자 등 가구 제작에도 활용된다.



사진: 어린이들이 '장난감 학교 쓸모' 수업에서 장난감 분해 과정을 통해 자원순환 원리를 익히고 있다.

“환경부가 2026년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트루는 플라스틱 장난감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쓰레기의 가치를 높이는 ‘트루’식 접근법

장난감은 플라스틱, 금속, 섬유 등이 섞인 ‘소형 복합 플라스틱 폐기물’로 재활용률이 1%도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매년 240만 톤 이상이 버려지고 대부분 매립 혹은 소각된다. 소각 과정에서는 다이옥신과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매립된 장난감은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 토양과 바다를 오염시킨다. 트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장난감을 기부받아 재사용할 수 있는 것과 손상된 것을 분류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장난감은 깨끗이 세척하고 다듬어 아동복지시설 등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분해해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과 쇠, 나사, 유리, 종이 등을 다 떼어내 분류하는 작업은 기계로 하기 어렵습니다. 일일이 수작업하는 이 과정부터 유의미한 경험이 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버려진 장난감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다. 그것을 자유롭게 분해하고 해체해 볼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신세계다. ‘장난감 학교 쓸모’는 아이들이 못 쓰게 된 장난감을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트루의 대표 활동이다. 지금까지 4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버려진 장난감을 다시 보는 트루만의 접근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작은 변화가 모여 사회를 움직인다는 희망

트루는 버려진 장난감을 실용적인 생활용품,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활동으로까지 나아갔다. 플라스틱 조각을 분쇄해 만든 낱알을 고온 압착하면 형형색색의 업사이클링 판재 ‘널’이 탄생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널은 다양한 크기와 두께로 제작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색상과 무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자르고 다듬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과 건축재료, 예술 작품을 만든다.

“환경부가 2026년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트루는 플라스틱 장난감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트루는 우리에게 작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장난감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장난감 기부와 재사용, 업사이클링을 통해 지구와 환경, 미래를 생각하는 윤리적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사진: ‘널’로 제작된 조형 작품 전시 모습



직접 촬영하신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든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직접 촬영하신 사진만 보내주세요. 타인의 사진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살맛 메이트



사진: 욕조에 걸쳐 놓은 반신욕 트레이 위에 살맛나는 세상 책자가 놓여 있다.

《살맛나는 세상》은 저의 화장실 메이트예요. 볼일 볼 때도, 반신욕 할 때도 함께하는 친구예요.

최구독자

○○○역 책장에 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살맛나는 세상》은 없죠? πππ 안타까운 마음에 한컷 찍어 보냅니다.



사진: 지하철역 내부 통로 한쪽에 놓인 책장에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다.



카카오톡 채널 접속 후 '채팅하기(●)'를 선택하여 참여(채팅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이메일 goodnews@kolon.com

참여 기한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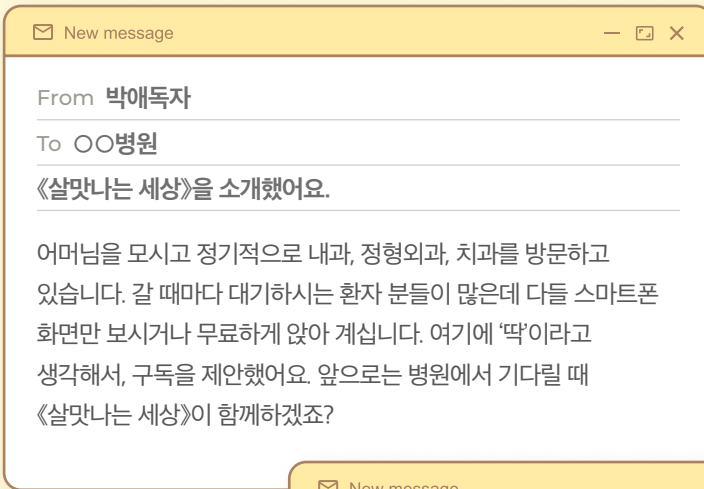
* 선정되신 분들의 사진 및 메시지는 책자에 소개되며, 커피 기프트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숨겨진 선행·미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려 세상을 보다 살맛나게 만들기 위해 탄생한 책자, 《살맛나는 세상》! 더 많은 분들에게 그 따뜻한 의미를 전하고자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주변에 소개해 주시거나, 소개를 받으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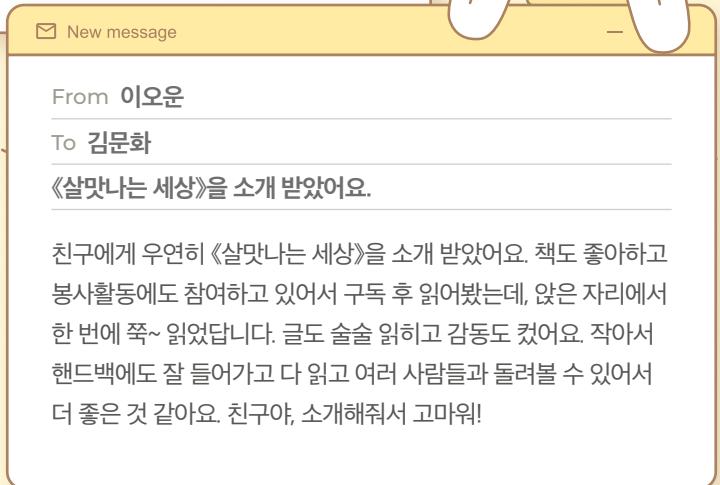


《살맛나는 세상》
구독 신청하기

'살맛나는 세상'을 친구에게 소개합니다!



예시



참여 방법 《살맛나는 세상》을 소개하신/소개받으신 후 좌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참여
참여 기한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 선정되신 분들의 사연은 책자에 소개되며, 두 분이 함께 드실 수 있는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에서 다시 피어나는 배움의 꽃

서귀포오석학교에서
34년간 청소년과 어르신을
가르쳐온 양희라 씨



사진: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어르신들을 응원하는 양희라 씨

스물여덟의 저녁, 또 하나의 (교실)이 열린 순간



사진: 저녁마다 배움의 불빛이 켜지는 서귀포오석학교

1991년 어느날, 퇴근길이었던 양희라 씨는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 나오는 교실을 보았다. 하루를 마치던 저녁, 그곳에서는 생계를 위해 일하던 청소년들이 다시 책을 펼치고 있었다. 서귀포오석학교는 배움을 이어가고 싶었던 이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지친 얼굴에 배움의 열기가 번지던 그 풍경은 그의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 두었고, 며칠 뒤 그는 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미술 교사로 하루에 한두 번 돕는다는 마음이었지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어느새 담임을 맡게 됐다.

청소년들은 총명했지만 형편 때문에 정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가르친다는 마음보다 함께 자란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라는 그의 말처럼, 그 시절은 삶을 함께 채워가던 시간이었다. 몇 해 뒤 한 제자가 성공해 장학금을 보내오며 전한 감사의 인사는, 그 골목의 불빛이 아이들과 자신을 함께 비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했다.

봉사 기간
1971년~현재,
34년간

봉사하는 곳
서귀포오석학교
1967년~현재
58년 운영

수업 교과
미술, 문해교육

봉사 대상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과 어르신

사진: 양희라 씨가 칠판 앞에서 분필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퇴근길,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에서 스물여덟의 양희라(61) 씨는 불빛이 새어 나오던 작은 교실 앞에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서는 저물어가는 하루 속에서 누군가의 배움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 장면은 그의 삶을 조용히 바꾸어 놓았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서른 해가 넘도록 이어졌다. 낮에는 서귀포 남주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밤에는 서귀포오석학교로 향하는 삶. 그의 하루는 그렇게 두 개의 학교 사이를 오가며 이어져 왔다.



사진: 양희라 씨가 34년간 교육 봉사를 하고 있는 서귀포오석학교

밤마다 커진 교실에서의 (서른네 해)

세월이 흐르며 교실의 풍경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배움의 자리를 놓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더 많다. 낮에 농사를 마치고 한 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오는 이도 있고, 어렵게 용기를 낸 분들도 있다.

그는 담임을 맡던 시절처럼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지금도 매주 목요일 저녁 일곱 시가 되면 어김없이 교실 문을 연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의 하루에서 가장 또렷이 살아나는 순간이다. 한글을 처음 배우는 어르신들이 모임을 헛갈려 하며 마음 졸일 때면 그는 말한다. “모르는 게 아니라, 살아내느라 미처 배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역이 좁다 보니 인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곤 했다. 사립학교인 남주중학교에서 오랜 시간 교단을 지켜온 덕에, 그는 한 지역 안에서 여러 세대의 시간을 함께 건너왔다. 과거 제자의 어머니가 문해교실에서 그를 다시 만나기도 하고, 손주가 중학교 교실에서 그에게 다시 ‘선생님’이라 부르는 일도 있었다. 서귀포오석학교는 이렇게 한 사람의 성장과 또 다른 누군가의 배움을 잇는 조용한 시간으로 쌓여 왔다.

“빨리 익히는 분도 있고, 몇 해를 반복해야 익숙해지는 분도 있어요.

그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워낙 큰 거죠. 글자를 배우는 건 어르신들이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가요. 여기 오면 힘이 나요.”



사진: 배움의 여정을 마친 어르신 제자들과 서귀포오석학교 졸업식에서 양희라 씨(앞줄 맨 오른쪽)



사진: 어르신들과 교실을 벗어나 현장학습을 함께한 양희라 씨 (왼쪽 첫 번째)



사진: 한글 초급반에서 어르신들과 수업 중인 양희라 씨

가르치며 배우는 삶, 또 한 번의 (시작)을 앞두고

사진: 수십 년간의 교육 봉사를 인정받아
받은 상장들



요즘 그는 한글을 처음 배우는 어르신들의 초급 수업을 맡고 있다. 글자를 익히는 속도는 모두 다르지만,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는 이곳이 얼마나 밝은 자리인지 새삼 느낀다. 이번 학기 첫 수업에서 그는 어르신들에게 짧은 편지를 건넸다. 바로 읽지 못해 머뭇거리던 분들이 집에 돌아가 한 글자씩 더듬어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순간을 깊이 간직하게 됐다.

“빨리 익히는 분도 있고, 몇 해를 반복해야 익숙해지는 분도 있어요. 그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워낙 큰 거죠. 글자를 배우는 건 어르신들이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가요. 여기 오면 힘이 나요.”

퇴임을 앞두고 그는 앞으로의 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곤 한다. 교실 문을 여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 지금, 오히려 더 자주 학교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던 그 골목의 불빛처럼, 밤마다 불이 켜지는 교실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다. 누군가의 배움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을 지켜보는 일, 그것이 지금의 그를 꾸준히 앞으로 걷게 하는 힘이다. ☺

사진: 갓을 쓰고 전통 의상을 입은 장남익 씨가 장구를 연주하고 있다.

구성진 가락이 이어질 때 우리는 희망을 나눈다



사진: 공연 중 어르신들께 따뜻하게 안아주는 장남익 씨

국악봉사단 ‘놀패’를 이끌며 공연 봉사를 하는 장남익 씨

얼씨구 좋다, 마음까지 웃는 공연

오후 두 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매그너스요양 병원 강당이 시끌벅적하다. 맨발에 고무신을 신은 각 설이가 등장하고 선글라스를 낀 소리꾼이 익살스럽게 인사한다. 국악봉사단 ‘놀패’를 이끄는 장남익 씨가 단원들을 한 명씩 소개한 후,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단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들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 눈을 맞추며 흥을 돋운다. 이어지는 몽금포타령에 장남익 씨의 장구 소리가 더해지니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한다.

“공연 때마다 조금씩 다른 레퍼토리를 구상해 옵니다. 민요와 동요, 가요까지 섞어 다양하게 보여드리야 어르신들이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장남익 씨는 공연 기획부터 스크립트 작성, 악기·장비 준비까지 맡는다. 공연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경기·서도·동부 민요를 골고루 포함 시키고, 곡 사이에 짧은 설명도 더한다. 가요를 부를 때는 어르신에게 마이크를 건네 함께 노래하며 분위기를 끌어 올린다. 한 시간을 꽉 채운 ‘놀패’의 공연이 끝나면 단원들은 휠체어를 밀어 어르신들을 직접 배웅한다. 강당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대금과 장구 소리는 여운처럼 이어진다.

민요는 삶의 희로애락을 노래한다. 구슬픈 한이 느껴지지만, 카타르시스도 있다. 한 곡조가 끝나면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하나가 된 듯한 공감을 불러오는 이유다. 장남익(57) 씨가 전하는 애잔한 노랫소리에는 인생의 긴 여정 끝에 선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희망이 담겨 있다.



사진: 장구를 치며 몽금포타령을 부르는 장남익 씨

“어르신 간병인으로부터
공연 중에 평소 안 하던
반응이나 몸짓을 하시더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 뿌듯하죠.
봉사는 우리 사회를 숨 쉬게
하는 모세혈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것
아닐까요.”

사진: 크리스마스에는 산타로 변신해
색다른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악으로 나와 당신을 잇는 경찰관

장남익 씨는 구리경찰서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경찰관이다. 경찰관으로 살아오던 그의 삶에 민요가 스며든 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 인해서였다. 오형제 중 유난히 어머니에게 의지했지만, 임종을 지키지 못한 한스러움이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정선 아라리’가 떠올랐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역수장마 질라나... 어머니가 민요를 흥얼거렸던 순간은 살아가는 일이 무척 고단하셨을 때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민요는 심금을 울리는 가사와 선율로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 민요학원을 찾아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2009년 난생처음 민요를 접한 후,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를 졸업하고 황해도 무형문화재 제3호 ‘놀량사거리’를 이수했다. 입도 뺏긔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민요로 삶의 애환을 덜어주고자 했던 첫 마음을 잃지 않았다.



사진: 장남익 씨(맨 오른쪽)가 이끄는 국악 봉사단 놀패



사진: 장남익 씨에게 어머니는 봉사의 계기가 되어준 분이다.

우리 사회를 숨 쉬게 하는 봉사의 힘

알음알음 도움이 필요한 곳을 소개받아 혼자 봉사 활동을 이어가다가 2022년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했다. 그 무렵 뜻이 맞는 동료들을 만나 국악 봉사단 ‘놀패’를 창단하고 정기적으로 국악 공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놀패’는 놀량사거리의 ‘놀’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패거리의 ‘패’가 만나 붙여진 이름이다. 혼자일 때보다 더욱 다양한 짜임새로 공연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단원 중 한 명이 컨디션 난조일 때 서로가 힘이 되어주며 성장해 나갔다. ‘놀패’는 월 2회 매그너스요양병원과 김

진성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맛깔난 공연을 선물한다. 심청전을 패러디해 선보였던 보이 스피싱 예방 교육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공연으로 타 지역에게까지 입소문이 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2025년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자 대축제 때 남양주시장 단체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곳 요양병원에는 저를 아들처럼 챙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르신 간병인으로부터 공연 중에 평소 안 하던 반응이나 몸짓을 하시더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 뿌듯하죠. 봉사는 우리 사회를 숨 쉬게 하는 모세혈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것 아닐까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장남익 씨는 근무 틈틈이 심폐소생술 강사로도 활동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시민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놀패의 소리꾼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르신들과 함께한 하루, 꾸준히 이어온 봉사 여정이 구성된 곡조와 함께 흘러간다. ☺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전화가 걸려 온 그날, 삶은 예고 없이 무너져 내렸다. 공허함과 불면의 시간이 이어지던 끝에서 그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붙잡듯 상담의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 스물세 해를 버티고 이어온 김귀선(68) 씨는 가장 힘든 시간을 건너온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절망 앞에 먼저 손을 내민다.

위로



사진: 김귀선 씨가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건네는 위로

전화상담 봉사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김귀선 씨

삶의 방향

사진: 김귀선 씨가 2003년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담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인천생명의전화



사진: 전화상담실에서 내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김귀선 씨

사라진 하루, 다시 시작된 삶의 방향

비가 내리던 아침이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어쩐지 그날따라 출근하기 싫다고 말했다. 오늘 만큼은 그냥 쉬라고 붙잡았지만, 남편은 사장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집을 나섰다. 몇 시간 뒤 남편이 조금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영안실에 누워 있었다. 현장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진 뒤 고인 빗물에 기도가 막힌 사고였다는 설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과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은 그의 마음을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었다. 장례 기간의 기억은 흐릿했고, 밤마다 이어지는 불면은 여섯 달을 채웠다. 집 안은 조용했고, 일상도 함께 사라져 있었다.

자신의 상처와 타인의 절망을 마주하는 일

“살다 보면 헤어짐이 있고
다시 만남이 있어요.
외로움은 문 열고 들어서듯
불쑥 찾아오지만, 결국 제가
극복해야 할 몫이더라고요.
상담을 하면서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제 마음도
단단해졌어요.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계속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은 그에게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보라며 봉사를 권했다. 그는 관침 놓는 법을 배워 교회 봉사단과 함께 전국의 어르신들을 찾아 다녔다. 낯선 이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몸을 어루만지는 시간은 그의 마음을 잠시 누이게 했다. 그러던 중 생명의전화 상담 활동을 소개받아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타인의 절망을 듣는 일과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는 일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그는 교육 과정에서 서서히 깨달았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을 쌓아갈수록 그 자리가 오히려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 2003년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생명의전화 상담을 시작했다. 평일에는 새벽 다섯 시 반부터 정오 무렵까지, 토요일은 오후 두 시 반까지 상담실을 지켰고, 그렇게 쌓인 시간은 스물세 해 동안 21,300시간을 넘어섰다.

사진: 생명의전화 생명사랑 발길걷기 캠페인에 참여한 김귀선 씨(왼쪽)



사진: 자살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며 위로의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파주하는 일



사진: 상담 매뉴얼을 숙지하며 더 나은 상담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상담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마음

가장 어둡고 조용한 이른 새벽, 전화 너머에서는 울음을 삼키는 사람들, 분노에 지쳤거나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거친 말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의 진심어린 상담에 내담자들은 숨을 고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여유를 찾았다. 한밤중의 절망이 조금씩 풀려 나오는 순간마다 그는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를 다시 확인한다. 상담을 이어오며 그는 자신을 돌보는 법도 조금씩 배워갔다. 내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까지 부드럽게 바꾸어 놓았다.

“살다 보면 헤어짐이 있고 다시 만남이 있어요. 외로움은 문 열고 들어서듯 불쑥 찾아오지만, 결국 제가 극복해야 할 몫이더라고요. 상담을 하면서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제 마음도 단단해졌어요.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계속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길었던 시간 속에서 그는 한결같이 새벽의 자리를 지켜왔다. 절망과 희망 사이 조용한 경계에서 그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마음을 건네고 있다. ☺

사진: 2024년 자원봉사 누적 2만 시간을 달성하며 핸드프린팅을 하기도 했다.





군 퇴직 후 25년째 봉사하는 이만구 씨



사진: 이만구 씨가 직접 접은 종이 하트를 들고 활짝 웃는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군 복무를 마친 뒤 이만구(80)
씨의 삶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각종 지역, 국제
행사장에서의 안내부터 재난 복구,
시각장애인 산행 지원까지.
2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온 발걸음에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시간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빛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사진: 이만구 씨는 오랜 봉사자로 다양한
단체에서 표창을 받았다.



군인에서 자원봉사자로 이행된 삶

“34년 동안 군 생활을 한 후 55세에 퇴역했습니다. 군 복무를 성실히 했다면 국가에서 훈장을 받았어요.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는데 큰 상을 받으니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만구 씨는 1967년 제1하사관학교 52기로 입교해 군 생활을 시작했다. 생활체육 축구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국군체육부대에서 16년간 심판을 맡았다. 2001년 5월 31일 전역하며 부사관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전역 직전 사회적인 기간이었던 2000년 6월 3일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그 뒤로 25년 동안 하루도 쉬었던 날이 없다.

2025년 12월 기준 누적 봉사시간은 45,098시간, 표창은 67개. 그는 봉사와 관련한 숫자만큼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설렘설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만구 씨에게 봉사는 이제 제2의 삶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군 생활에 버금가는 시간이 쌓이며,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를 ‘봉사왕’으로 부를 정도다.

10,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를 비롯해 2024년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서울특별시장상, 시각장애인 과 함께한 등반 사진, 국제대회 참여 일지, 수상 이력, 직접 쓴 봉사 수기, 손때 묻은 안내장까지 봉사로 단련된 그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사진: 이만구 씨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고 있다.



다시 빛나는 인생

잊지 못할 봉사의 기억들

이만구 씨의 봉사 이력은 참 다양하다. 강서구 등촌동에서 진행한 수능 수험생 수송 지원, 등명중학교 결식아동을 위한 청와대·경찰박물관·전쟁기념관 견학 지원 등 생활 반경 가까이에서 하는 봉사부터, 폭설·수해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 복구 현장에서의 봉사까지 수십 가지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 애정을 두고 이어온 활동은 시각장애인 산행 동행 봉사와 국제대회 자원봉사다.

2001년 1월 포천 주금산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진행된 시각장애인 산행 동행 봉사는 2015년 12월까지 14년 동안 총 555회에 걸쳐 이뤄졌다. 봉사자와 시각장애인이 한 쌍을 이루어 봉사자의 등산배낭에 묶인 50~60cm 길이의 끈을 시각장애인이 잡고 함께 오르는 방식은 매 순간이 모험이었다.

“2008년 10월 9일, 안성 칠현산·덕성산·칠장산을 산행 하던 중 시각장애인 세 명과 봉사자 다섯 명이 말벌에 쏘였습니다. 119에 신고해 헬기와 구급차가 도착했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죠.”

대부분의 산행은 즐거웠지만, 예기치 못한 위험 앞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도 있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은 산행 봉사를 이어갈 수 없지만, 그 시절 만난 시각장애인 친구와의 인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함께 정상에 올랐던



사진: 국제대회 자원봉사 활동의 하나로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봉송에 참여한 모습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간 중 태풍 ‘매미’로 행사장의
가건물과 전시품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복구가
완료되어 다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었을 때 ‘이게
자원봉사의 힘이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진: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에게 나눌 종이접기 작품을 정성껏 만들고 있다.





사진: (위) 시각장애인이 이만구 씨의 등산배낭에 묶인 끈을 잡고 산에 함께 오르고 있다.
(아래) 이만구 씨가 폭우 피해 현장에서 진흙을 퍼내며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시간은 고통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준 순간이었고, 이만구 씨 인생에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이어지는 봉사 여정

이만구 씨는 2000년 9월 ‘서울미디어시티 2000’을 시작으로 국제대회 봉사 여정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한 해 평균 5~6개의 국제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2002 한일 월드컵’을 비롯해 인천 아시안게임, 춘천인형극제, 통영국제음악제 등 전국 곳곳의 행사장을 찾아가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맡았다.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간 중 태풍 ‘매미’로 행사장의 가건물과 전시품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복구가 완료되어 다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었을 때 ‘이게 자원봉사의 힘이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국제대회 자원봉사는 까다로운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 데다, 개막부터 폐막까지 3주에서 한 달 가까이 현장에서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지만, 그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는 280명 중 유일한 외지인이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까지 자비를 들여 참여하는 그의 의지와 열정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거의 모든 대회 때마다 표창장을 수상했다.

여든이 넘는 지금은 현장에서 뛰는 봉사는 쉽지 않지만, 마치 그때를 대비하기라도 한 듯 나이를 먹어도 계속할 수 있는 봉사를 오래전부터 찾아 두었다. 2004년에 취득한 종이접기 자격증이 그것이다. 현재 그는 방화동 불날서울요양원과 강서사랑요양원 두 곳에서 종이접기 재능기부를 한다. 직접 만든 작품을 아파트 중앙 통로에 놓고 ‘3세~7세 유아들만 하나씩 가져가세요’라고 적어두면, 어느 순간 어른들이 먼저 가져가 버린다고 아이처럼 웃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의 봉사 지론은 오랜 세월 쌓인 관록 그 자체다. ☺

겨울의 추위를 녹여준 따뜻한 행동들



#1

소방대원들에게 따뜻한 공간과 화장실을 내어준 식당 주인

2025년 1월, 경기 의정부에서
용현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오랜 시간 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대원분들에게는 몸을 녹일 곳도,
사용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이때 한 식당
주인이 새벽에 가게 문을 열어 실내로
안내하고 화장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배려가 고된 화재 진압 중
잠시나마 쉼 공간을 선사했습니다.



삽화: 식당 주인이 문을 열고 소방대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소방대원들은
식당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네고 있다.

#2



삽화: 눈이 쌓인 도로에서 사람들이 차량 바퀴 주변의 눈을 치우고,
뒤에서 차를 밀고 있다.

폭설에 파묻힌 차량이 빠져나오도록 도와준 시민들

대설주의보가 내린 2023년 1월의
어느날,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도로에 쌓인 눈 때문에 바퀴가 헛돌며
차량 여러 대가 멈춰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서 바퀴 밑 눈을 치우고,
뒤에서 차를 밀고, 운전석에 앉아
직접 작동을 시키며 운행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혐오’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정과 관련한 연관어 검색량이 지난해에 비해 150% 이상 상승했고, ‘좋은 사람’의 행동을 삽화로 모아낸 책이나 팝업스토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살맛나는 세상》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좋은 행동을 도감으로 보여드립니다.

#3

치매 어르신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준 사람

2025년 1월, 서울의 한 편의점 앞 길가에서 한 시민이 체감온도 영하 15도의 날씨에 외투도 없이 헤매고 계신 치매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어르신 어깨에 둘러 드린 뒤, 길을 잃으시지 않도록 보호하며 경찰과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삽화: 한 시민이 추운 날씨에 외투를 입지 않은 어르신에게 자신의 외투를 걸쳐 주고 있다.

#4



삽화: 길에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옆에서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고 있다.

출근길에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들

2024년 1월, 시민영웅 세 명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2023년 9월, 울산 동구 전하동의 한 골목길에서 한 중년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한 시민은 차를 세운 뒤 119에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시민도 동참하며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쓰러진 시민은 병원에서 맥박을 회복했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2017

<원더(Wonder)>

MOVIE

사진: 우주복 헬멧을 쓴 아이가 침대 위에서 두 팔을 들고 뛰어오르고 있다. 방 안에는 별 무늬 벽지와 장난감이 보인다.

공감, 서로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영화 <원더(Wonder)> & 에세이 《보통의 언어들》

공감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라 말하지만, 실은 내가 아닌 세계를 잠시 통과해 보려는 느린 태도에 가깝다. 누군가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곁에 서서 한순간 숨을 고를 때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 움직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두 편의 작품을 함께 펼쳐본다. 공감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타인의 세계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다시 배우게 된다.

새로운 세계로 내딛는 조심스러운 첫 걸음

여기가 학교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장면처럼 고요하다. 복도 바닥에 번지는 빛, 아이들 사이로 스미는 낮은 숨결.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거쳤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얼굴을 지닌 그는, 집에서 공부하다 열 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낯선 집단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은 누군가의 세계에 내딛는 첫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보여준다. 여기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한다. “괜찮아. 난 괜찮아.” 하지만 그의 어깨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세계 앞에서의 두려움이 얹혀 내려앉아 있다. 교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의 시선이 밀려오고, 그는 단숨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잠시 멈춰선다. 영화는 이 당황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그가 자리까지 걸어가는 길을 묵묵히 따라간다. 이해보다 먼저 필요한 건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듯이. 이 이야기는 작가 R.J. 팔라시오가 품어온 한 장면에서 비롯되었다. 얼굴 기형이 있는 소녀를 마주했을 때, 자신의 아이가 놀라 숨었고, 그는 어떻게 웃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굳어버렸다고 했다. 그 감정이 《원더》(아름다운 아이)의 씨앗이 되었다.

사진: 학교 급식실에서 어기와 동급생인 서머가 마주 앉아 있으며, 서머가 어기에게 약수를 청하고 있다.



공감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다. 타인의 세계 앞에 잠시 멈추어서 보려는 마음, 그 마음이 어기의 떨림을 따라 관객의 마음까지 천천히 열어 준다.

공감이 스며드는 작은 움직임들

영화는 어느 순간 조용히 시점을 바꾼다. 어기의 누나, 비아는 말한다. “나는 언제나 배경이었어.” 동생을 사랑하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못했던 마음이 짧은 문장 안에서 스친다. 짙은 어기와 친구가 되고 싶지만 또래 속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서투른 선택을 하고, 그 말이 남긴 상처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줄리언은 가해자로 보이지만 화면 어딘가에 번지는 표정 속에는 두려움이 어른거린다. 원더는 인물들의 마음을 분석하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어기의 모습을 담담히 비춘다. 같은 장면도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공감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태도임을 영화는 조용히 말한다. 인물들은 단숨에 변하지 않는다. 비아도, 잭도, 줄리언도 제각각 두려움과 오해를 지나 조금씩 방향을 돌려낸다. 변화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어기와 잭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장면처럼. 교사 브라운의 말이 잔향처럼 남는다. “좋은 일을 선택할 기회가 오면, 친절할 쪽을 선택하라.” 공감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다. 타인의 세계 앞에 잠시 멈추어서 보려는 마음, 그 마음이 어기의 떨림을 따라 관객의 마음까지 천천히 열어 준다.

김이나, 위즈덤하우스

《보통의 언어들》

감정이 언어를 앞지르는 순간

《보통의 언어들》은 작사가 김이나가 오랫동안 감정과 언어 사이에서 길을 잃어가던 순간들을 붙잡아 쓰기 시작한 책이다. 일상의 감정들을 짧은 글들로 포착한 에세이집으로,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방식이 이어진다. 감정은 크게 밀려오는데 말은 따라오지 않고, 말로 설명하려는 순간 감정이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들. 그는 그 시간을 지나며, 감정은 정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자리라는 사실을 서서히 알게 되었다. 감정은 때로 말보다 오래 머무르고, 서둘러 정리하려 할수록 흐릿해지기도 한다. 책은 감정을 해석하거나 성급히 단정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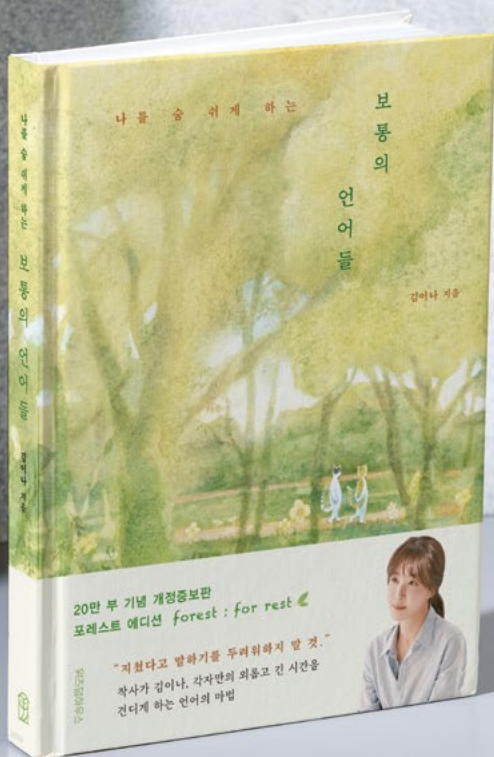


사진: 보통의 언어들 책이 햇살이 비치는 책상 위에 놓여 있다.

BOOK



슬픔이 말로 다 옮겨지지 않을 때, 그 침묵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함께 바라보는 일. 말이 없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며,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슬픔이 말로 다 옮겨지지 않을 때, 그 침묵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함께 바라보는 일. 말이 없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며,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보통의 언어들》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고 바라보는 태도를 아주 조용한 문장들로 들려준다.

말의 결이 마음을 스치는 순간

감정을 언어로 옮기는 일을 오래 해 온 작사가 김이나는, 단어를 선택하는 순간 마음의 결도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해 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말의 결을 먼저 살핀다. “왜 그래?”라는 짧은 문장이 마음을 죄게 만들 때가 있고, “괜찮아?”라는 말은 아주 작은 틈을 열어 준다. 말이 건네지는 방식, 그 속도와 온도가 감정의 방향을 바꾼다. 책은 공감의 요령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말이 흔들리고 더듬거릴 때, 그 흔들림 속에서 진심이 더 선명해진다고 이야기한다. 말을 고르기 전 잠시 멈추는 호흡, 상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생기는 조용한 머뭇거림. 바로 그 순간 공감은 서서히 빛을 찾는다. 언어는 마음이 지나가는 길을 비춰주는 작은 등불일 뿐이고, 그 등불이 흔들릴 때조차 마음은 남아 있다.

말이 닿지 않아도 이어지는 마음

《보통의 언어들》은 말과 감정 사이에 생기는 틈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 감정은 말보다 먼저 오고 더 크며, 때로는 말로 담기지 않는 곳에 오래 머문다. 김이나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조각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조각들 덕분에 관계는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더 깊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서 감정을 느끼고, 그 세계의 언어로 감정을 말한다. 그래서 언어는 언제나 완전할 수 없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다. 말이 닿지 못한 자리까지 걸어가 바라보려는 작은 움직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잃지 않으려는 마음. 그 느린 의지가 관계의 온도를 바꾼다. 책을 덮고 나면 남은 것은 ‘감정을 잘 말하는 법’이 아니라 ‘말로 닿지 못한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공감은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세계의 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고, 그 세계를 서둘러 단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런 느린 마음은 오히려 더 소중해진다. 이야기의 잔향이 우리의 일상에도 번져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하기를 바란다. ③

코오롱사회봉사단은 매년 가을, ‘꿈을 향한 Wish 트레킹’을 통해 걸음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건기 챌린지를 넘어 올해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복원과 탄소 감축 실천을 연결하는 친환경 기부 트레킹으로 진행되었다.

한 걸음의 탄소 절감, 산불 피해지에 숲을 심다

2025 꿈을 향한 Wish 트레킹



사진: 꿈을 향한 Wish 트레킹은 걸음기부 플랫폼 '빅워크'를 통해 진행되었다.



사진: 참여자들은 SNS를 통해 걸음 기부 활동을 공유하기도 했다.



사진: 코오롱그룹은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 지역 피해 현장 자원에 나서기도 했다.



코오롱그룹은 2022년 올진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약 1억 원의 의류, 올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 지역에 산불 긴급구호를 위한 쉼터 100동, 소방관 의류 500벌, 푸드트럭 등 산불 피해 현장 지원을 해왔다. 올해 꿈을 향한 Wish 트레킹은 긴급구호 이후 산림 복구까지 확장하는 의미를 담았다. 꿈을 향한 Wish 트레킹은 걸음기부 플랫폼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코오롱 임직원들은 물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3주간의 활동으로 총 10,818 명이 참여하였고, 걸음 수는 총 약 8억 3천만 보로 당초 목표로 한 6억 보를 훨씬 상회했으며, 이동 거리로는 약 69만 3천 km였는데, 해당 거리를 차량 대신 걸음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국립환경과학원 환산 기준으로 소나무 약 8,300

만 그루의 연간 탄소흡수량에 해당하는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걸음 기부 순위가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 공유되면서 참여자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선한 경쟁'이 일어났다. 코오롱 임직원들 역시, '쉬는 시간에도 제자리 걸음을 할 만큼 즐겁게 참여했다.' '팀원들과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참여 후기를 전하기도 했고, 일반 시민들의 경우 SNS 참여 캠페인을 통해 걷기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많은 이들의 참여로 목표인 6억 보를 달성한 이번 활동의 결과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 자작나무 식재를 위한 비용을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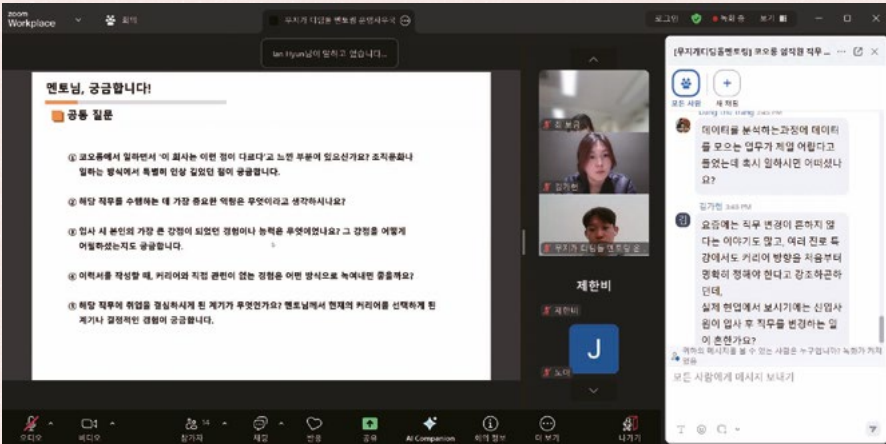


사진: 온라인으로 진행된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10기 임직원 직무 멘토링 화면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10기 임직원 직무 멘토링



사진: 2025년 5월, 코오롱 One&Only타워에서 진행된 임직원 직무 멘토링

11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다문화·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10기 대학생 멘토들이 코오롱의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지난 5월 코오롱 One&Only타워에서 사육 투어와 함께 진행한 바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장소의 제약 없이 더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 명의 임직원 멘토들이 시간대를 나눠 본인의 성장 스토리부터 대학시절, 그리고 취업 준비와 그동안의 직무에 대해서 소개했다. 특히 대학생 멘토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진로 탐색과 커리어 전환 경험', '외국인 직원의 글로벌 역량 활용', '현실적인 인턴십과 입사 전략'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정해, 각 주제의 맞춤 임직원이 이야기를 전하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주제에 신청해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직원 멘토들은 대학생들의 고민에 진심을 다해 귀기울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10기 대학생 멘토들이 한국에서의 진로 로드맵을 그려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과 동일한 배경의 대학(원)생을 매칭, 10개월간 학습 및 문화멘토링을 진행하는 코오롱의 다문화·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코오롱ENP, 반려 해변 플로깅 봉사활동 진행

지난 11월 5일, 코오롱ENP 임직원 20명은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인천 용유해변에서 해변 정화를 위한 플로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임직원 봉사자들은 페어망, 폐밧줄, 유리조각 등 해변 곳곳의 유해 폐기물을 수거하며 해양 생태계 보호에 힘을 보탰다.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이날의 활동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되었다는 소감과 함께 꾸준한 참여를 약속하기도 했다.



사진: 코오롱ENP 임직원들이 인천 용유해변에서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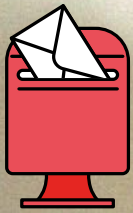


사진: (위) '사랑의 김장'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코오롱베니트 임직원들
(아래) 김장 봉사에 참여한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파주사업팀 임직원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베니트 임직원들, 김장 봉사활동 참여

코오롱베니트, 그리고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파주사업팀 임직원들이 각각 김장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코오롱베니트의 신입사원이 중심이 된 17명은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부모, 홀몸어르신 가정 60여 가구에 전달될 김장김치를 직접 담갔다. 스포렉스 파주사업팀 임직원 50여 명은 파주시새마을회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 1,100 가구를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에 힘을 보탰다.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김치로 소외 이웃들의 겨울이 조금 더 풍성하길 바라본다. ☺



독자엽서

Thank you

2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관계 디톡스를 실천해야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나 직장이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관계 디톡스를 실천해야겠어요.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차차 서로에게 윈윈이 되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From. 박현정 님(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살맛나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독자엽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빨간 우체통에 채택되신 분에게는 ‘코오롱스포츠 버킷햇’을 드립니다.

Thank you

1

권영섭 봉사자의 아름다운 선행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팍팍하고 냉담한 사회에서 사랑을 전하는 권영섭 봉사자의 아름다운 선행을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목욕 봉사, 말동무, 도시락 봉사 등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는 활약상에 아무리 칭찬의 말씀을 드려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마음 아픈 사람은 많지만 그 병을 치료해 줄 사람은 많지 않다고 느꼈는데 권영섭 봉사자님께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니 희망적인 미래가 그려졌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From. 이열우 님(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Thank you

3

안동의 맹개마을로 떠나 관계 디톡스를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진정한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 안동의 맹개마을 소개가 좋았습니다.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살맛나는 세상》에서 잘 소개를 해주셔서 떠나보고 싶어졌습니다. 칼럼 제목 그대로 관계 디톡스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역사 공부할 때 배웠던 도산서원 바로 옆이네요. 여러모로 유익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찜닭도 꼭 맛볼래요.

From. 최철호 님(전남 여수시 대치1길)

‘살맛나는 세상’ 캠페인



오운문화재단 웹사이트 '살맛나는 세상' 캠페인 소개 페이지

(재)오운문화재단의 ‘살맛나는 세상’ 캠페인은 1999년 초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난과 실업 등으로 어두워져 가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선행·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에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故 이동찬 코오롱그룹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시작되었다. 격월간 선행·미담 사례집 『살맛나는 세상』을 발행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선행·미담 사례 가운데 모범 사례를 선정하여 격려하는 ‘우정선행상’을 시상하고 있다.



《살맛나는 세상》
구독 신청하기

오운문화재단

